'못 깨달은 부처'와 '깨달은 중생'



新 불교사자성어

㉛ 실유불성(悉有佛性)

실유불성(悉有佛性), 일체 중생은 누구나 다 불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불성' 이란 곧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불할 수 있는 바탕 · 자질 · 속성 · 가능성 등을 말한다. 이것을 ' 불성사상 '이라고 하는데, 중국 · 한국 · 일본 등 대승불교권에서는 성불의 철학적 · 사상적 바탕이 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이다.

불교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자질이나 바탕을 갖고 있다고 본다. 실유불성은 대승경전의 하나인 〈열반경〉에 있는 사자성어로, 구체적으로는 '일체중생 실유불성(悉有佛性)' 이다.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갖고 있다' 는 뜻이다. '실(悉, 모두)' 자 대신 '개(皆, 모두)' 자를 써서 ' 개유불성 '이라고 하기도 한다.

중생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 일체중생, 실유불성 ' 사상은 불교사상사(佛敎思想史)에서도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종교 가운데서 오직 불교에만 있는 진리로서 많은 중생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주는 사상이다. 지금은 비록 중생으로서 미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본질은 깨달은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누구나 다 불성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깨닫기 위하여 노력, 수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음은 〈열반경〉의 내용인데 필자가 조금 문장을 정리한 것이다.

"그대들은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이 듣지 못한 것인가. 그것은 곧 여래의 비밀한 법장(法藏 · 여래장, 불성)이니라. 즉 일체 중생은 모두 다 불성을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불법승에 차별이 없느니라. 여래의 비밀한 법장은 참으로 영원한 것[常]이고, 참다운 낙[樂]이고, 참다운 나[我]이고, 번뇌에 물들지 않은 참다운 청정[淨]함이니라."

이에 대하여 사자후보살이 의문이 생겨서 부처님께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누구에게나 다 불성이 있다면, 굳이 중생들이 도를 닦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중생에게는 누구나 다 불성이 있으나 번뇌에 가려서 볼 수가 없을 뿐이니, 번뇌를 제거하면 불성을 보게 되느니라."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불성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고 번뇌는 구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면 햇빛이 없는 흐린 날이 되지만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원래의 성질대로 빛을 바깥으로 방출한다. 구름에 가려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은 불성이 있으나 번뇌에 가려 볼 수 없는 것이고, 구름이 걷혀 빛나는 태양이 보이는 것은 번뇌가 제거되어 불성을 보게 되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 선불교에서는 〈열반경〉의 법문을 절대적인 근거로 삼아서 '일체중생' 을 인간에 한정시키지 않고 미물에 까지 확장시켜서, '준동함령 개유불성(蠢動含靈 皆有佛性)' 이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미물을 비롯한 모든 움직이는 생명체(蠢動含靈)에는 모두 불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직은 깨달음을 발현시키지 못한 미혹 속에 있는 중생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불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므로 무시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일체중생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지만, 정진과 수행을 통하여 그 불성을 개발, 완성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자질이나 바탕을 갖고만 있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금광에 원석이 많이 있지만 제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을 본래성불사상(본래는 깨달은 부처라는 뜻), 본각사상(본래적으로는 깨달아 있다는 말)이라고도 하는데, 간혹은 이 말을 착각하여 노력, 수행도 하지 않고서 '깨달은 부처' 라고 하는 사람, 깨닫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 그런 철학이나 진리는 없다.

문제는 올바른 수행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불교적인 수행은 100년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은 분명 백두산으로 간다고 믿고 갔는데 도착해 보니 묘향산 정상인 것과 같다. 일체중생 실유불성이지만 그 불성을 개발하여 완성시키지 못하면 미혹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불성을 발현시킨 자(부처)와 발현시키지 못한 자(중생)의 차이일 뿐이다. 우리는 '깨닫지 못한 부처' 이다. 그리고 부처는 '깨달은 중생' 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바람 불 때 불 붙였기 때문



격절록 강설

㉛ 흠산수권 2

[評唱 2]

雪竇因風吹火 用力不多. 乃竪起拳頭云 "握則為拳 有高有下" 復開云 "開則成掌 無黨無偏" 且道 放開為人好 把定為人好. 開也造車 握也合轍 若謂閉門造車 出門合轍 我也知你向鬼窟裏作活計" 古人為此事 如是故 故如此. 且道 是如何.

설두는 바람이 불 때를 이용해서 불을 붙였기 때문에(因風吹火) 많은 힘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주먹을 세우고 말하기를 "쥐면 주먹이 되니, 높음도 있고 낮음도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주먹을) 펴고는 말하기를 "펴면 손바닥이 되니, 편파적인 것도 없고 치우친 것도 없다. 자, 말해보라! 펴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쥐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손을 펴고 수레를 만들어도 주먹은 수레 바퀴자국에 맞는다. (하지만) 만약 문을 닫고 수레를 만들어도 문을 나서면 수레 바퀴자국에 맞는다고 한다면 나 역시 그대들이 귀신굴속에서 활발하게 계교부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고 하였던 것이다.

고인이 이 일(此事, 일단대사=일대사인연)을 위한 것이 이와(此)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했던 것이다. 자, 말해보라! 이것은 어떤 것인가?

古人同條生則是一 為什麼却如此不同. 諸人無事 試翻覆參詳看. 是什麼道理. 若是箇漢 一覷便知 其或擬議 便隔千山萬水 了沒交涉也.

고인이 같은 가지에서 나왔다면 같아야 할 것인데, 어째서 이와 같이 같지 않은 것인가? 대중은 별일 없으면(無事) 시험 삼아 이를 뒤집어서 참구하고 상세히 살펴보라!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만약 이러한 사람(是箇漢)이라면 한 번 보면 바로 알겠지만, 혹 머뭇거리면 바로 천산만수(千山萬水)로 그 간격이 벌어져 전혀 관계없게 될 것이다.

❋인풍취화(因風吹火)와 관련해서 〈전등록〉 제13권 '여주 풍혈 연소 선사' 편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僧問 "如何是臨機一句" 師曰 "因風吹火 用力不多"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임기일구(臨機一句)입니까?"

풍혈이 말했다.

"바람이 불 때를 이용해 불을 붙이면 힘을 쓰는 것이 많지 않아도 된다."

❋'同條生' 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선문염송집〉 810칙 참조)

(중략) 僧至夏末 再擧前話 請益 頭云 "何不早問" 僧云 "未敢容易" 頭云 "雪峰雖與我同條生 不與我同條死 要識末後句 只這是"

(중략) 어떤 스님이 여름 안거가 끝나는 날에 이르러, 다시 앞의 이야기를 들어 청익을 했다.

암두가 말했다.

"어째서 일찍 묻지 않았는가?"

스님이 말했다.

"(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암두가 말했다.

"설봉이 비록 나와 같은 가지에서 났지만, 나와 같이 죽지는 않는다. 말후구를 알고자 하는가? 다만 이것뿐이다."

❋千山萬水(천산만수): 수없이 많은 산과 물이라는 뜻으로, 깊은 산속을 이르는 말. 여기서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널 만큼 그 간격이 벌어진다는 뜻이다.

❋본칙 흠산수권화는 〈전등록〉 17권과 〈선문염송집〉(N. 914)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㉛ 이해의 길 11

無我, 자유와 사랑의 길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사물은 본질을 갖추고 있는 '존재(存在)' 이지만, 인간은 본질을 스스로 창조하기 때문에 '무(無)' 다"고 하였다. 쉽게 말하면 의자는 앉을 수 있고 칼은 무언가를 자르며 휴대폰은 전화하는 데 쓴다는 본질이 정해져있지만, 인간은 어제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착한 사람으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은 정해진 본질(我)이 없기(無) 때문이다. 물론 그는 스스로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리고 있지만, 본질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불교의 무아적 사유를 살짝 엿볼 수 있다.

무아란 글자 그대로 자아(自我)가 없다는 뜻이다. 자아란 자기동일성이나 정체성, 본질 등 여러 표현으로 쓰인다. '나' 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기의 모습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이일야가 어제 부산 해운대에 있든, 오늘 서울 종로에 있든 같은 인물이라는 것이다. 가까운 이웃을 낯선 곳에서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서로 알아보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붓다는 심하게 태클을 걸었다. 왜냐하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여러 연기적인 조건들이 모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나의 의자가 만들어지기까지 나무라는 재료도 있고 나무를 자른 사람의 땀방울, 그리고 나무를 잘 자라게 해준 햇빛과 구름, 비 등 많은 요소들이 연기적으로 얽혀있다. 이처럼 모든 사물은 여러 인연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 이라고 고집할만한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무아는 곧 연기의 공간적 관찰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를 현실과 연결시키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스마트폰을 인류에 처음 소개한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아이패드를 만든 것은 애플이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갈림길에서 고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였다.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탄생은 기술의 비약적 발전뿐만 아니라 '무아' 라는 인문학적 사유가 결합된 성과물이다. 스마트폰은 그 기능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본질은 '전화를 하는 데 쓰는' 것이다. 텔레비전이나 카메라, 신용카드 등과는 완전히 다른 본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전화를 하는 데 쓰는' 자아(我)를 해체(無)하고 본질이 전혀 다른 존재들을 담았다. 전화기라는 자아에 집착했더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성과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무아는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유가 나오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무아적 사유를 인간에게 적용하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진다. 지금도 나의 자형은 해마다 오래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산소에 벌초를 하러 온다. 나는 그 이유를 무아에서 찾았다. 자형은 아버지를 장인(我)이 아니라(無) 친부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장인은 '아내의 아버지' 라는 본질을 갖고 사위는 '딸의 남편' 이라는 자아를 갖는다. 연기적 관점에서 아내, 혹은 아내의 아버지가 없다면 장인이라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매형과 아버지는 '아내의 아버지' , '딸의 남편' 이라는 본질을 해체해버렸다. 그 결과 두 분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에서 벗어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새로운 관계로 질적 변화를 이루었다. 자아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 깊어지는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자아는 무상과 마찬가지로 사랑이 나오는 원천이다.

그런데 불교에서 부정하는 것은 자아가 아니라 자아에 대한 집착이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아에 대해 집착을 하면, 자유로운 사유와 사랑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식당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보기 힘들지만 수업시간에 책상은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본질을 갖지만, 점심시간에는 밥과 반찬을 차리는 밥상으로 변신을 한다. 일종의 '자아와 무아의 동거' 인 셈이다. 아버지들의 로망인 자식과 친구처럼 술 한 잔 나누는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잠시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 어머니들이 아들과 애인처럼 서로 팔짱을 끼고 걷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사랑과 자유가 나오는 무아의 참 모습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9년 8월 2일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개강 | 2019년 9월 2일 월요일

교수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 범패 · 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작법무 (바라춤, 나비춤)

원서교부 | 2019년 8월 2일 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강 | 2019년 9월 3일 화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 www.kumgangnet.com | Tel 02)969-2410, 4981 Fax 02)964-2433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56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9년 9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net FAX : 02)737-5305